

명절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찾고 싶다면?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로

문체부,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통합안내 페이지 통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29일부터 10월4일까지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Culture.go.kr/home)’을 운영한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추석특집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안내 페이지다.

문체부는 지난 9월31일부터 전시영상과 스포츠 감상 등 29개 국공립 기관(57개 체널)이 제공하는 비대면 콘텐츠를 국민들이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포털’(Culture.go.kr) 내 ‘집콕 문화생활’을 운영해 왔다.

이번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은 ‘집콕 문화생활’의 추석특집기획이다. 연휴 기간 동안 ▲전통/민속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주제별로 선별해 새롭게 제공한다.

전통/민속은 ▲추석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집콕! 추석 즐기기’(국립민속박물관) ▲공

원에서 즐기는 가을밤 퓨전국악공연 ‘가을 밤 달빛공연’(문화재청), ▲한국공중예술의 정수 ‘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등 12건이 마련된다.

가족/어린이는 ▲‘나무와 아이’ 등 어린이 공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생활체육(대한체육회) 등 7건을 볼 수 있다.

공연/영상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탈리아·독일·프랑스 오페라 주요 공연(국립오페라단) ▲한국 고전영화 257선 등 22건 등이다.

전시/체험/행사는 ▲가족의 독특한 놀이 문화를 소개하는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인기전시 영상 관람 ‘추석엔 집콕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으로 즐기는 추석 연휴 국내여행 ‘추석 집콕 캘린저’(한국관광공사) 등 12건이 마련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24일부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코로나 집콕’ 방법을 공유하는 ‘즐거운 우리집 집콕놀이를 소개해줘’(즐집소) 공모전을 시작했다.

가족을 비롯해 반려 동·식물, 친구, 동료들과 놀이로 소통하는 3분 내외 동영상은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지정 해시태그 표시(해시태그)를 달아 등록 후 공모전 페이지(‘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통해 접속)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시태그는 #즐집소 #집콕놀이릴레이(참여잇기) #가족놀이 #코로나19 #문화로이겨내요 등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 그동안 바빠서 사투기만 하고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서 읽고,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누리집에서 전시와 공연을 보고, 또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웃놀이나 체육활동을 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19와 시간적·공간적 이유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즐기지 어려웠던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도 새로운 문화 향유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전주대 김동현 교수(소방안전공학과)팀은 경주 남산에서 UTM 기반 차량 이동식 및 지상 고정식 드론스테이션 시스템 기술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드론 기술, 문화재 보호에 심다

전주대 김동현 교수팀, 경주서 드론스테이션 기술 시연회

전주대 김동현 교수(소방안전공학과)팀은 경주 남산에서 UTM 기반 차량 이동식 및 지상 고정식 드론스테이션 시스템 기술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자연재해와 인적 위험요소 등에 대해 노출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드론기술 활용을 검토해 왔다. 문화재 지역에서 드론 비행 사고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다양한 드론기술 보유 업체의 기술검토와 함께 국가연구개발기술을 수행하고 있는 전주대 드론기술개발팀과 세차레 기술설명회를 가져왔다.

경주역사유적지구인 남산은 1,800ha 면적에 보물 13을 포함한 37종의 문화재가 있는 지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불, 지진, 토석류 등으로 인해 문화재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자동충전기술과 무인자동비행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 발달로 드론의 활동범위가 더욱 넓어졌지만 문화재 권역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그동안 일반 재해드론보다 기술 수준이 높고 사고 위험성이 없는 최상위 안전기준이 필요했다.

이번 기술시연에서는 차량용 드론스테이션에서의 비가시권 일정 등록을 통한 조종자 없는 자동비행기술과 영상 인식시스템 구현, 정밀 자동이착륙, 자동충전, 차량에서의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지휘자 스마트폰에서 드론영상 동시 확인과 현장인력과의 동시 통화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유선통신드론 시연을 통해 지난해 강원 고성 산불로 인해 이동통신기지국이 소실돼 시민들과 소방대원들의 휴대폰이 먹통이 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장은성 기자

무주도서관 모범 다독자·책 읽는 가족 시상

모범 다독상 - 김대철씨 등 10명
책 읽는 가족상 - 박기만씨 가족

무주도서관(관장 옥경중)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모범 다독자(10명)와 책 읽는 가족(1가족, 3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수상자들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으로 도서관 화상품권을 증정했다.

도서관에 따르면 수상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다 권수 대출 실적과 꾸준한 독서활동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모범다독상 일반부문 수상자 김대철(41)씨는 “요즘은 e북도 많지만 책을 직접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 책의 느낌이 좋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범다독상 학생부문 수상자 최희준(7)군은 “책을 많이 읽고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말했다.

옥경중 관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무주 군민들이 도서관과 책을 사랑하고, 또 독서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모범 다독자 ▲이현주(9) ▲박재호(12) ▲백경진(50) ▲김성희(21) ▲전명옥(66) ▲김대철(41) ▲오선미(37) ▲남공상운(51) ▲김영은(36)
- ◇책 읽는 가족 ▲박기만(55) ▲송미정(52) ▲박재웅(9) /장은성·전문서 기자

전주대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생 내달 23일까지 모집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10월 23일까지 도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술강좌인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는 전라북도의 인문 자산 및 유교문화의 정수를 알아보고 공유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도내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강좌는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8회(매주 수요일)에 걸쳐 실시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은 선착순 30명에 한해 모집하고 있으며, 강의 신청은 10월 23일까지 전주대 HK+연구원 홈페이지(www.j.ac.kr/hk/)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203, 32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추석연휴, 도민들을 위한 ‘따로 또 같이’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도립미술관, 특별프로그램 운영
미술관 소장품 콘텐츠 활용 영상
예술영화 무료 관람... 인원 제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해 ‘따로 또 같이’ 추석연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미술관의 소장품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화, 생동하다’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과 예술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 인원은 35명으로 제한한다.

상영작은 ▲30일 ‘나의 완발’ ▲10월 2일 ‘피아니스트의 전설’ ▲10월 3일 ‘비투스’

▲10월 4일 ‘미드나잇 인 파리’ 등 이며 관람 시간은 오후 2시다.

미술 체험은 ▲30일 ‘전통문양 컵받침 꾸미기’ ▲10월 2일 ‘전통 투각등 만들기’ ▲10월 3일 ‘명화퍼즐 색칠하기’ ▲10월 4일 ‘동물자극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하루 5회, 매 시간 1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진행한다.

차기 전시 교체기간으로 인해 전시 관람은 할 수 없으며 특별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www.jma.go.kr) 및 전화(290-6888)로 할 수 있다.

김은영 관장은 “미술관에서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kosca35.or.kr

도전과 개혁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멈출이 없습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라북도의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문건설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1대 회장단·감사·운영위원

회 장	김 태 경	(유)석과토건				
부 회 장	김 삼 문	(유)향림조경	임 근 홍	(유)유림건설		
감 사	김 동 수	(유)도곡건설	이 중 석	(유)웅비건설		
운영위원	박 충 귀	(유)기능건설	유 흥 중	(주)누리토건	임 동 갑	(유)다영건설
	박 재 영	(유)대흥건설	방 한 응	(유)도암건설	백 석 현	(유)산하조경
	조 공 섭	(주)삼일공사	정 용 남	(유)서울안전기업	최 인 태	석금건설(주)
	전 성 배	(유)아일건설	김 성 오	(주)유경건설	조 성 호	(주)일성건설
	김 장 기	장미조경건설(주)	김 재 주	창남건설(주)	김 판 기	(주)케이건설
	장 태 수	(유)한성토건				